

종합·해설

■ 문-안 단일화 관전 포인트

① 모바일 투표나 여론조사나

- ② 10일 이후 협상 시작할까
- ③ 감동 주는 단일화 될까
- ④ 선거보조금 받을 수 있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의 단일화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단일화 시기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게 벌어지고 있다.

안 후보 진영 내부에서 단일화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측 간 기싸움의 초점이 각론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시기>=안 후보는 오는 10일까지는 정책 발표와 현장 행보에 집중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후에나 단일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야권 단일후보 확정 시기는 후보 등록 직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것도 정책연대나 단일화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는 경우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단일화 시점이 후보 등록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

도 있다. 문 후보 측은 단일화가 후보 등록 이후로 미뤄져 투표지에 두 후보 이름이 모두 인쇄되면 '사표(死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에서 사퇴하고도 투표용지에 이름이 들어간 심상정 후보에게 물린 표가 13만표였다"며 빠른 단일화 논의의 착수를 요구하고 있다.

<방식>=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단계지만 상대적으로 조지력이 약한 안 후보로서는 여론조사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빠른 단일화 일정을 놓고 볼때도 현장 경선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방식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데 힘이 실린다.

그러나 단일화 방식은 양측이 협상

을 통해 정한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혼합형'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선호하는 모바일 경선과 안 후보 측이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여론조사 방식을 적정 비율로 섞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감동> 단일화가 관건=정책 차원의 공감과 원만한 단일화 협상으로 감동 있는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것이 두 후보 지지세력의 이합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단일화 방식 등을 놓고 격렬하게 대결한다면 단일화 시기도 늦어질 뿐더러 지지층 균열로 단일화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선거보조금도 변수>=선거비용은 현재 민주당이 단일화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후보등록일(25~26일)을 기준으로 '웹법'이 바뀐다. 후보등록 전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문 후보가 승리하면 민주당은 150억원 정도의 선거보조금을 수령한다.

반면 안 후보는 무소속이어서 단일

화 승리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안 후보가 단일화에 승리하거나, 단일화 없이 본선에 완주해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인 560억원 정도 내에서 선거비용을 100% 보전받을 수 있다. 안 후보가 단일화에서 승리하고 입당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선거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후보등록 이후 단일화가 이뤄지면 민주당은 문 후보의 단일화 승리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후보 사퇴시 선거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이른바 '떡볶이법'이 통과된다면 경우가 달라진다.

때문에 후보등록일 이후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나오지만 야권에서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큰 시나리오다.

대선 투표용지에 사퇴한 후보의 이름도 함께 인쇄되기 때문이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12월 초 전 후보 사퇴가 이뤄진다면 후보자 이름 옆에 '사퇴'라고 적혀 유권자의 혼선을 다소 막을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 '중앙·수도권 선대위 출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일산 컨벤션에서 열린 '중앙 및 수도권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익산 종교행사서 만난 야권 후보들 미묘한 신경전

문 "단일화 꼭" 안 "미소만..."

야권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신경전이 한창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4일 전북에서 열린 한 종교행사에서 조우했다.

두 후보는 이날 전북 익산시 원불교 중앙총부 반백년기념관에서 열린 제14대 장승철 종법사 취임식에 참석, 행사에 앞서 접견실에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잠시 환담했다.

접견실에서 장 종법사는 두 후보의 손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겨 한데 모으고 카메라에 포즈를 취하자 미묘한

신경전이 연출됐다.

주변에서 "(종법사님이) 단일화를 중재하는 것 같다"고 하자, 문 후보는 "단일화를 꼭 이루려는 뜻"이라고 화답하며 안 후보를 압박했다. 안 후보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행사장인 강당으로 자리를 옮긴 두 후보는 앞줄에 나란히 앉아 집안 종교 애기 등으로 1분간 대화를 나눴다.

안 후보는 "의사가 독실한 불교신자이고 처가는 독실한 가톨릭이다. 저는 없다"고 말하자, 문 후보는 "저

희 집안도 처가도 모두 가톨릭"이라고 답했다.

공식석상에서 두 후보만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후보 측은 지난 2일 안 후보 측에 단일화 방식 논의에 앞서 정책연합 합의를 위한 협상이라고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한편, 문 후보는 11일 지금까지 발표한 주요공약을 총 정리하는 종합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근혜, 생식기만 여성 ... 역할 안해' 황상민 교수 발언 정치권 파장 확산

연세대 황상민 심리학과 교수가 최근 방송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 "생식기만 여성이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없다)"고 한 발언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 채널A의 한 프로그램에서 김진에 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박근혜 후보의 여성 대통령론. 여성인 저는 왜 모욕당한 느낌이 드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 같은 표현을 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생활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며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 애들을 키우는 것을 보고 우리는 여성이라고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박 후보가 결혼을 했나요, 애를 낳았나요"라고 묻는 뒤 "(박 후보는) 생식기의 문제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 건(없다)"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지난 2일 황 교수의 발언에 대해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가 신촌에서 테러를 당했을 때 느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최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 주요 인사들의 여성 대우에 대한 언어폭력에 이는 언어테러"라며 "중앙선거대책위와 상의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남도지사 후보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 보선을 위한 새누리당 후보에 홍준표 <사진> 전 대표가 선출됐다.

4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날 창원시 마산신내체육관에서 열린 경남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남도당 대회에서 홍 후보가 3024표(선거인단 2558표·여론조사 35.5%)를 얻어 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창원시장 박완수 후보는 선거인단 2243표, 여론조사 41.6%로 홍 후보에 236표 뒤진 2788표에 그쳤으며, 고성군수인 이학렬 후보는 선거인단 406표, 여론조사 9.6%로 3위를 차지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안철수 "4대강 사업 중단"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신규 원전건설도 막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지난 2일 정부의 4대강 사업 축소와 원상복원,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의 환경에너지포럼은 이날 공동 캠프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지혜로운 사용 ▲생태계 보전·훼손된 국토복원 ▲국민 생명과 건강보호를 통한 삶의 질 제고 등 3대 정책 목표와 10대 전략 과제를 발표했다.

포럼 대표인 안병욱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도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이 사업이 생태계와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은 8조원에 달하는 수자원공사 4대강 투자비 회수 목적으로 지난 해 4월 만들어졌지만, 환경단체들은 강 주변 시설물의 홍수피해 가능성과

난개발에 의한 환경오염,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등으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다음 정부의 집권 기간인 2017년까지 6%로, 2030년까지는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고,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전남·전북·제주·경남의 바다와 새만금 일원 등 공력단지 조성 지원하고, 공공 시설 뿐 아니라 산업·상업시설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매투자

▶배우면서 수익 내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등 회비 550만원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증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정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부동산 거래,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1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행도 / 정확한관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생양동(나이트클럽) 대3238㎡, 23090㎡ 감정가 72억2천 최저가 25억4천	화정동(예식장) 대1094㎡, 214489㎡ 감정가 41억4천 최저가 17억	두암동(목욕탕) 대570㎡, 21256㎡ 감정가 41억4천 최저가 5억9천	소태동(독서실) 대561㎡, 21439㎡ 감정가 12억4천 최저가 6억4천	월출동(공정) 대1089㎡ 감정가 14억4천 최저가 10억	화순도곡(무인텔) 대1904㎡, 2628㎡ 감정가 26억7천 최저가 18억천	월계동(근린시설) 대446㎡, 2269㎡ 감정가 6억9천 최저가 3억5천
--	---	--	--	---	---	---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 금동(목욕탕) ≫ ▷ 대지 91평 ▷ 건물 303평 ▷ 감정가격 10억 ▷ 매매가격 4억7천(협의후결정)	≪ 군산(바이오에너지공장) ≫ ▷ 대지 3025평 ▷ 건물597평 ▷ 감정가 99억4천 ▷ 매매가 38억 (협의후결정)	≪ 담양(공정) ≫ ▷ 대지 1482평 ▷ 건물 299평 ▷ 감정가격 7억1600만 ▷ 매매가격 5억(협의후결정)
≪ 용봉동(하미스포텍스) ≫ ▷ 대지 4076평 ▷ 건물 12943평 ▷ 감정가 515억7천 ▷ 매매가 160억(시설비별도)	≪ 북구 대촌동(2층공장) ≫ ▷ 대지 1506평 ▷ 건물 1031평 ▷ 감정가 39억8천 ▷ 매매가 32억5천 (협의후결정)	≪ 화정동(예식장) ≫ ▷ 대지 330평 ▷ 건물 1357평 ▷ 감정가 41억4천 ▷ 매매가 20억(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구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충현이사 010-8227-7759

소재지	대지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생양동	대3238, 23090	72억	25억	3층+이트
화정동	대1094, 214489	41억4천	17억	8층예식장
두암동	대570, 21256	79억4천	5억9천	5층근린
월출동	대1089, 14439	12억4천	5억9천	4층점점
화순도곡	대1904, 2628	26억	18억	4층무인텔
월계동	대446, 2269	6억9천	3억5천	2층점점
소태동	대561, 21439	12억4천	6억4천	5층목욕
남양동	대227, 21004	79억4천	3억9천	5층점점
남양동	대46, 248	19억8천	8천	1층무인
남양동	대353, 21314	13억	5억9천	5층무인
화순도곡	대1904, 2628	26억	18억	4층무인텔
화순도곡	대1905, 2628	26억	18억	4층무인텔
대촌동	대204, 2983	59억1천	2억1천	5층목욕
영일읍	대4599, 21704	59억1천	2억	3층목욕
대촌동	대40, 21218	5억	196천	3층상가
대촌동	대253, 29545	8억	494천	지하공부

아파트/빌라 박미란대표 010-8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대표 010-8567-4600 근린주택 손해연이사 010-9611-2817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는 2006년부터 경매진행중이거나 유입한 부실자산(NPL)을 유동화회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거나 매각하고 있습니다.
▶ 병원, 공장, 예식장, 빌딩, 토지, 호텔 등 대형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시면 에셋코리아와 상의하십시오